

초중등 영재학급·교육원의 학생 생활지도 실태 및 과제 - 영재 담당교사들의 인식을 중심으로

이 재 분

한국교육개발원

이 미 경

전남대학교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초중등 영재학급과 영재교육원에서 나타나는 일상생활 상의 문제들 중 교사들이 생활지도할 때 어렵다고 여기는 문제가 무엇이며,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그 실태를 파악하고 실천적 과제를 도출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전국의 초중등 영재학급 및 교육청 영재교육원 담당교사 26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주요 연구결과 및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체 응답자의 82%정도가 영재교육에서 생활지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이 요구된다. 둘째, 학생들의 이기적 성향 등을 교사들이 가장 심각한 문제로 느끼고 있으며, 이는 영재아 생활지도에서 기본생활습관, 도덕성 등을 중요하게 다루어야 함을 시사한다. 셋째, 학부모들과의 상담에서 학부모들의 영재교육에 대한 잘못된 인식 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으므로 생생한 사례 중심의 학부모 교육이 필요하다. 넷째, 교사들은 생활지도를 도와 줄 수 있는 현실적 방법으로, 인성교육 프로그램, 경험 있는 교사들을 중심으로 한 멘토링 체계 혹은 상담협의체 구성, 사례중심의 영재 생활지도 및 상담 가이드라인 개발 등이 필요하다. 다섯째, 향후 영재아들을 우리 사회공동체에 기여하는 사회적 자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윤리적 마인드를 갖춘' 영재를 키우는 한국형 영재교육 모델을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다.

주제어: 영재 생활지도와 상담, 영재 생활지도와 상담의 실제적 문제들, 영재학부모 상담

I. 서 론

최근 영재의 정의적 특성과 특별한 요구에 관한 연구는 증가하고 있다(Neihart, Reis, Robinson, & Moon, 2002). 이러한 연구는 크게, 영재가 일반아동에 비해 사회·정서적으로 우수하고 안정적이라고 보는 긍정적 입장과 오히려 취약할 수 있다고 보는 부정적 입장으로

교신저자: 이미경(mklee3@hotmail.com)

*이 연구는 한국교육개발원의 <영재교사를 위한 이럴 땐 이렇게! 생활지도 길라잡이>(이재분 외, 2013)> 개발사업 중 실시된 설문조사에 기초하여 이루어졌으며, 연구결과는 발표된 바 없음.

대별되지만(Neihart 외, 2002; 윤여홍, 2000; 윤초희 외 2004), 대부분의 학자들이 동의하는 것은 영재의 사회·정의적 특성을 영재 전체로 일반화하여 정형화된 틀에서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이다(Robinson & Clinkenbeard, 2008).

영재들의 사회·정의적 특성이 개인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인다는 것은 이 문제에 접근하는 교육적 조치 역시, 일괄적이고 집단적인 교육보다는 개별적인 접근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는 추측을 가능하게 한다. 이는 영재교육에서 생활지도와 상담이 중요한 영역이 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일찍이 미국의 말랜드 보고서에서는 1년 이상의 특별한 상담을 받은 영재들이 자아정체성과 사회적 관계, 학업성적에서 뚜렷한 성장을 보였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한 바 있다(Marland, 1972). 또한 최근의 학자들도 영재의 생활지도와 상담이 미래 영재교육에서 주요한 관심영역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Blackett & Hermansson, 2005).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재의 생활지도 및 상담의 모델, 프로그램, 그리고 그들의 효과 등에 관한 연구는 일반학생들의 생활지도와 상담에 관한 연구의 증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미하다(Blackett & Hermansson, 2005). 특히 영재아 상담에 관한 연구들은 상담의 필요성과 영재아 요구의 특수성을 다루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고(예를 들면, Silverman, 1993a; 1993b; 1993c; 윤여홍, 2000), 교사가 교실현장의 교육실천적 장면에서 어떤 실질적 조치들을 하여야 하는가, 그 효과는 무엇인가에 관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국내에서도 2000년 이후 영재의 인지적 특성 외에 정의적 특성에 관한 관심이 증가되고는 있지만(한기순 외, 2007), 대부분 영재아동이 일반아동에 비해 정의적 특성의 어떤 요소에서 차이를 갖는가 하는 영재아 인성의 특성적 요소에 연구의 관심이 집중되어 왔다(임혜숙, 1997; 이신동 외, 2011; 여상인 외, 2007; 윤초희 외, 2004; 신미리 외, 2003; 배진호 외, 2004). 최근 들어 영재의 학교생활만족도, 시간관리행동, 또래관계, 학업스트레스, 자살충동 등 생활지도와 관련된 연구(천유리 외, 2012; 조성신 외, 2011; 김선미 외, 2013; 이국행 외, 2003; 송경혜 외, 2001; 진선홍 외, 2012)들이 조금씩 늘고 있는 것은 고무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생활지도와 상담의 방법이나 교사들이 겪는 어려움, 효과적인 지도방안 등에 대한 연구는 여전히 적은 편이다.

특히 본 연구진이 주목하였던 것은, 국내 영재를 대상으로 한 영재의 사회·정서적 특성에 관한 연구가 주로 영재로 선정된 본인들에게 묻는 검사지나 설문지를 활용한 심리측정적 접근방법에 의존하고 있었다는 점이다(한기순 외, 2007). 영재 본인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는 자칫 영재의 부정적 측면이 잘 드러나지 않아 우리나라의 영재들이 갖고 있는 특수성에 대한 전반적인 통찰을 얻기 어려울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이 문제를 현장교사의 인식을 통해 접근하고자 한다. 교사들은 영재교육의 현장을 가장 현실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전문가로서 우리나라 영재들이 전반적으로 어떤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갖고 있는지,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교사 혹은 교육현장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현실적인 통로이다. 물론 영재교사들이 모두 영재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그들의 판단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 그러나 다수의 교사들이 지적하는 문제와 느끼는 심각성의 정도는 우리나라 영재의 특성에 대한 이해와 생활지도의 방향을 잡는데 큰 의미를 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영재들이 교실 현장에서 보여주는 일상생활 상의 문제들 중 교사들이 이들을 생활지도할 때 어렵다고 여기는 문제가 무엇이며, 교사들은 이러한 문제들을 어느 정도로 심각하게 보고 있고,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그 실태를 파악하고 실천적 과제를 도출해보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장 교사들은 영재교육에서 생활지도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가?

둘째, 우리나라 영재들이 교실 현장에서 보여주는 생활지도 상의 문제들은 무엇인가? 교사들은 이러한 문제들을 어느 정도로 심각하게 보고 있는가?

셋째, 교사들은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가?

넷째, 교사들은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어떤 요구를 하고 있는가?

II. ‘생활지도’에 대한 용어 정의

생활지도란 학교 내외에서 당면하는 적응·발달상의 문제를 돕기 위해 마련되는 교육적, 사회적, 도덕적, 직업적 영역 등의 계획적 지도 활동(이장호, 1999)으로, 학생 개개인의 성장과 발달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조력활동이다. 일반적으로 상담은 생활지도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활동 중의 하나로 보고 있다(이재창, 1998; 황응연, 윤의준, 1993; 이상 김계현 외, 2000에서 재인용). 생활지도의 활동에는 집단상담·심리검사·심리적 평가·정보봉사·정치활동(定置活動) 등을 들 수 있으며, 자문과 조정(調整)의 활동도 점차 강조되고 있다(교육학 용어사전, 1995). 생활지도의 영역을 내용별로 구분함에 있어, 김충기(2003)는 이를 교육지도, 직업지도, 성격지도, 건강지도, 사회성지도, 여가선용지도, 도덕지도 및 종교지도 등으로 구분하였고, 이정희(2008)는 30년 이상 교육경험을 갖고 있는 일곱 명의 원로교사들에 대한 해석학적 연구를 통해, 생활지도의 내용적 영역을 기본생활습관, 예절생활, 건강 및 안전생활로 구분하였다.

‘생활지도’라는 개념과 유사한 것으로 ‘인성교육’이 있다. 인성교육이란 “사람들이 가족, 친구, 이웃, 지역사회, 국가의 일원으로 함께 살아가고 일하는데 도움을 주는 바람직한 사고와 행동의 습관화를 위한 일련의 교육”으로서, 학생들로 하여금 존중, 정의, 민주 시민적 자질, 자기 자신과 타인에 대한 책임감 등의 핵심 윤리적 가치를 이해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며 행동하게 하는 학습과정이며, 이를 토대로 우리 사회의 기반이 되는 안전하고 건강한 공동체를 보증하는 태도와 행동을 형성하게 하려는 것이다(현 주 외, 2009). 즉 인성교육의 핵심은 우리 사회가 인정하고 있는 윤리적 가치에 대한 교육이다.

많은 부분에서 ‘인성교육’과 ‘생활지도’는 교육적 내용이 겹친다. 이 둘 간의 차별성을 따져본다면, ‘인성교육’이 ‘생활지도’보다 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가치를 이해하고 학습하게 하려는 과정에 더 비중을 두는 반면, ‘생활지도’는 학생 개개인에 더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교육활동이라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영재아의 생활지도에 대한 의미를 ‘영재아에게 보이는 특수한 적응·발달상의 문제를 돕기 위해 마련되는 교육적, 사회적, 도덕적, 직업적 영역 등의 계획적 지도 활동’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그러므로 전문적인 상담활동뿐만 아니라 교과지도 이외의 모든 교육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의미로 사용할 것이다.

III. 연구 방법

영재학생을 위한 생활지도의 필요성, 영재 생활지도상의 문제, 이러한 문제에 대한 영재 교사들의 해결방법 및 요구 등을 파악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전국의 초·중·등 영재학급 및 교육청 영재교육원 담당교사 267명(1개 기관 당 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1. 조사 대상

조사대상자는 성별(남: 52%, 여: 48%), 소속기관별(영재학급: 43%, 영재교육원: 57%), 학교급별(초등: 65%, 중학: 29%, 고등 6%), 근무지별(대도시: 37, 중소도시: 37%, 읍면: 25%)로 고르게 표집하였으며, 참고로 이들의 영재교육경력, 담당교과영역, 상담경험, 상담관련 연수수혜 경험별 현황은 다음의 <표 1>, <표 2>와 같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영재교육경력, 담당교과영역별 분포

영재교육경력	명 (%)	담당교과영역	명 (%)
1년 이하	15 (5.62)	수학	86 (32.21)
2~5년	136 (50.94)	과학	111 (41.57)
6~9년	79 (29.59)	인문사회	18 (6.74)
10~14년	21 (7.87)	예술	7 (2.62)
15년 이상	16 (5.99)	기타(주관식)	45 (16.85)
계	267 (100.00)	계	267 (100.00)

<표 2> 조사대상자의 상담경험, 상담 관련 연수 수혜 경험별 분포

상담경험	명 (%)	연수 수혜 경험	명 (%)
있다	175 (65.54)	있다	90 (33.71)
없다	92 (34.46)	없다	177 (66.29)
계	267 (100.00)	계	267 (100.00)

2. 조사도구

관련 선행연구 분석과 사전조사 결과 분석을 토대로 설문지 문항을 구성하였다. 설문지(초안)에 대한 사전조사는 영재교육 심화연수를 이수한 초·중·등학교 영재교사 총 17명을 대상으로 2013년 4월 18일부터 4월 23일까지 6일간 진행되었으며, 영재 생활지도 및 상담에 대

한 현장 교사의 의견을 폭넓게 수합하기 위해 자유기술형 질문을 활용하였다. 실제 조사를 위해 최종 선정된 문항은 ‘영재학생 생활지도의 필요성’, ‘영재교사가 인식하는 영재학생의 특성’, ‘영재교사와 학생과의 관계’, ‘영재학부모와의 관계’, ‘생활지도의 어려움과 개선에의 요구’ 등이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표 3>과 같다.

<표 3> 설문지 문항 구성

영역	질문 내용	문항번호
응답자 배경정보	성별, 영재교육경력, 소속기관유형, 담당 학교급, 근무 지역, 담당교과영역, 생활지도 관련 상담경험 유무, 생활지도 관련 연수 경험 유무	1-8
영재학생 생활지도의 필요성	교육기관 내 생활지도 및 상담의 유무	9
교사가 인식하는 영재학생 특성	생활지도 및 상담의 필요성 인식	10
	영재와 일반학생 간 차이 인식	11(하위 6문항) 12(주관식)
영재교사와 학생과의 관계	영재학생이 겪는 어려움	13
	상담전문가가 필요한 영재를 만난 경험	14
	교사의 학생 심리적 특성에 대한 이해	15(하위 6문항)
	영재학생 지도시의 어려움 인식 정도	15-7(주관식)
영재교사와 학부모와의 관계	생활지도중 겪은 어려움의 해결 방법	15-8(주관식)
	생활지도중 겪은 어려움의 가장 심각사례	16
	학부모의 영재 심리적 특성에 대한 이해정도에 대한 교사인식	17(하위 6문항)
	영재학부모와의 관계에서 느끼는 어려움의 정도에 대한 교사 인식	17-7
생활지도를 위한 행정적 지원 현황과 개선 요구사항	학부모와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방법	17-8
	학부모와의 어려움 중 가장 심각한 사례	18(하위 4문항)
생활지도를 위한 행정적 지원 현황과 개선 요구사항	생활지도 어려움의 학교 행정상의 원인	19(하위 6문항)
계	개선요구 사항	46개 문항

3. 조사자료 수집 및 분석방법

설문조사는 전자메일을 활용하여 2013년 6월 5일부터 6월 18일까지 2주일 간 실시하였으며, 수집된 설문 결과는 엑셀로 코딩한 후 SPSS 19.0으로 분석하였다.

IV. 연구 결과

조사 분석결과를 ‘영재학생 생활지도의 필요성’, ‘영재교사가 인식하는 영재학생의 특성’, ‘영재교사와 학생과의 관계’, ‘영재학부모와의 관계’, ‘생활지도의 어려움과 개선에의 요구’ 등으로 나누어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영재 생활지도의 필요성

가. 영재학급, 영재교육원 60%정도가 생활지도 및 상담 실시

영재학급이나 영재교육원에서 실제 생활지도 및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267명)의 61.42%(164명)가 ‘그렇다’고 응답하였으며, 이는 교육기관 유형(영재학급, 영재교육원), 학교급, 지역별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나. 영재담당 교사 82%정도는 생활지도 및 상담이 필요하다고 응답

영재담당 교사들에게 수업 외에 영재학생의 생활지도 및 상담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를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82.77%가 그렇다(그렇다 49.06%, 매우 그렇다 33.71%)고 하였다. 이러한 응답결과는 교육기관 유형(영재학급, 영재교육원)이라든지, 학교급, 지역 등 응답자의 배경변수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교사 배경변수와 상관 없이 대부분의 영재교사들이 영재 생활지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2. 교사가 인식하는 영재학생 특성

가. 지적 발달과 정서적 발달의 불균형을 보이는 영재

관련 문헌 및 선행연구는 영재학생의 특성으로 ‘관심과 흥미의 다재 다능성’, ‘높은 성취에 대한 압박감과 스트레스’, ‘모험과 실험정신 및 위험 회피경향의 양면성’, ‘내향성과 빈약한 또래관계’, ‘지적발달과 정서적 발달의 불균형’, ‘완벽주의와 과도한 자기비판 경향성’ 등을 들고 있다. 영재 담당교사들은 영재학생들의 이러한 특성이 과연 일반학생과 차이를 보인다고 생각하는지를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관심과 흥미의 다재 다능성’, ‘높은 성취에 대한 압박감과 스트레스’, ‘모험과 실험정신 및 위험 회피경향의 양면성’에 대해서는 80%이상의 응답자가 영재학생과 일반학생 간에 차이가 있다고 하였다. ‘지적발달과 정서적 발달의 불균형’에 대해서는 63%정도가 차이가 있다고 하였고, ‘완벽주의와 과도한 자기비판 경향성’에 대해서는 59%정도가 ‘내향성과 빈약한 또래관계’에 대해서는 51%정도가 차이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완벽주의와 과도한 자기비판 경향성’이나 ‘내향성과 빈약한 또래관계’에 대해 응답교사의 절반 정도가 영재의 특성으로, 절반 정도는 일반학생과 큰 차이가 없는 특성으로 교사들이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나. 영재학생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가정에서의 지나친 기대 및 강요

교사들이 상담을 통해 가장 자주 접하는 영재학생의 어려움 1순위는 ‘가정에서의 지나친 기대 및 강요’(61.7%)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 2순위는 ‘진로에 대한 고민’(46.6%)이었으며, 3순위는 ‘가정에서의 외로움 토로(형제자매 간 차별 등)’(37.5%)였다. 그리고 4순위는 ‘경계적 어려움’(24.8%)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 응답자 34%정도가 상담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영재학생을 경험

영재학급 및 영재교육원 담당교사들에게 현장에서 상담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영재학생

을 만난 경험이 있었는지를 질문한 결과, 응답자의 34.08%(91명)가 그렇다고 하였다. 그리고 대도시 근무 교사(43.0%)가 중소도시(31.6%)나 읍면(25.4%) 근무 교사보다 만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3. 교실 현장에서의 영재 생활지도 상의 문제

가. 40%정도의 교사만이 영재학생의 심리적 특성을 이해

영재담당 교사에게 영재학생들의 심리적 특성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는지를 질문한 결과, 응답자의 40.07%(그렇다 35.58%, 매우 그렇다 4.49%)만이 그렇다고 하였다. 그리고 영재학생의 심리적 특성에 대한 이해 정도에서 초등학교 근무 교사(3.45/5점)가 중학교 근무 응답자(3.14)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생활지도 상담 경험이 있는 교사가(3.42)가 경험이 없는 교사(3.21)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학생을 이해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영재교사의 학생이해 및 지도를 위한 연수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표 4> 영재학생의 심리적 특성에 대한 이해 정도

	구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F값	집단간 차이
담당 학교급	초등학교	174	3.45	.709	5.125**	초>중
	중학교	76	3.14	.667		
	고등학교	17	3.24	.831		
	합계	267	3.35	.717		
생활지도상담 경험	있다	175	3.42	.730	5.590*	있다>없다
	없다	92	3.21	.672		
	합계	267	3.35	.717		

나. 교사들이 겪는 영재학생의 지도상의 어려움: 이기적 성향, 학생의 다양성 등

그렇다면 우리나라 영재들이 교실 현장에서 보여주는 생활상의 문제 중 영재교사들이 가장 지도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을 무엇일까? 이에 대한 교사들의 생각과 이러한 문제들의 심각성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을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영재학생을 지도할 때 교사가 겪는 문제에 대해 어려움의 심각한 정도가 '심각하다' 혹은 '매우 심각하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은 '학생들의 이기적 성향'(60.67%), 이었다. 그 다음은 '학생간의 흥미도와 관심영역의 차이'(41.95%), '학생간의 지적 수준 차이'(38.95%)였다. 그리고 '영재수업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음'(24.37%), '교우들 간의 따돌림'(16.85%), '교사에 대한 무시'(12.49%)의 순으로 나타났다.

'학생 간의 지적 수준 차이'에 대해서는 영재학급 근무 교사가 영재교육원 근무 교사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심각하다고 응답하였고, 대도시 근무 교사가 중소도시 근무 교사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심각하다고 응답하였다(<표 5> 참조). '교우들 간의 따돌림'에 대해서는 영재학급 교사가 영재교육원 근무 교사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심각하다고 응답하였으며, '교사에 대한 무시'에 대해서 생활지도·상담 경험이 없는 응답자가 경험을 지닌 응답자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심각하다고 응답하였다(<표 6> 참조).

<표 5> ‘학생간의 지적 수준 차이’에서 오는 어려움

구 분	사례 수	평균	표준편차	F값	집단간 차이	
교육기관유형	영재학급(a)	116	3.32	.861	5.622*	a>b
	영재교육원(b)	151	3.05	.944		
	합계	267	3.17	.916		
지역	대도시	100	3.34	.855	3.979	대도시>중소도시
	중소도시	100	2.98	.932		
	읍면	67	3.19	.941		
	합계	267	3.17	.916		

<표 6> ‘교사에 대한 무시’에서 오는 어려움

구 분	사례 수	평균	표준편차	F값	집단간 차이	
생활지도·상담 경험	있다	175	2.45	.957	4.876*	없다>있다
	없다	92	2.72	.953		
	합계	267	2.54	.962		

교사들로 하여금 영재학생 생활지도 시 겪는 어려움의 사례에 대해 자유롭게 응답하게 한 결과에서도 영재학생의 자기중심적 성향, 이기주의적 태도는 많은 교사들이 문제로 지적하고 있었다. 교사들은 협동과제 수행의 어려움, 타인의 조언 및 충고 무시, 타인에 대한 이해와 배려 부족, 이기주의적 태도 등, 영재학생의 자기중심적 성향이 가장 심각한 문제임을 지적하였다.

<표 7> 영재학생 지도 시 겪은 어려움의 사례(자유응답 분석결과)

사례 유형	빈도
영재학생의 자기중심적 성향 (협동과제 수행의 어려움, 타인의 조언 및 충고 무시)	21
영재학생의 타인에 대한 이해와 배려 부족, 사회성 결여. (특히 영재원 외의 일반 학생들과 교우관계에 어려움 겪음, 극단적인 경우, 폐쇄적·방어적 태도 보임)	20
영재학생의 이기주의적 태도	19
시간 부족에 따른 학생 파악 및 교감의 어려움 (학생에 대한 사전정보 없이 수업을 해야 하는 어려움, 상담의 지속성 결여)	14
영재 및 영재교육에 대한 부모의 인식 부족으로 인한 학생-부모 간 갈등 (장기적 안목 부족, 결과에 집착하는 태도, 지나치게 높은 기대)	8
영재학생의 진로에 대한 불안감 및 진로 상담 기회 부족	7
영재교사의 영재학생 제재 수단 부족 및 수업의 진정성 확보 어려움 (스펙 차원에서 수업 참여하는 학생들이 있음, 영재수업에 대한 특권의식)	7
영재학생의 관심 외 영역에 대해 수동적 태도 (관심 없는 내용, 수업 후 뒷정리 등)	5
사례 없음	10
정신적·정서적 문제 (자폐 경향, 정서 불안, 실수에 대한 강박, 과도한 과제집착성)	9
지나친 자존감과 다른 영재학생 간의 비교에 따른 자격지심 간의 상반되는 상황에 대한 갈등	2
기타 선행학습과 영재성 간의 혼동	1
학교 수업에 대한 관심 부족	1
영재학생 간 수준 차이	1

다. 영재교사들의 다양한 문제해결 방법

그렇다면 영재교사들은 실제 현장에서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고 있을까? 영재담당 교사들에게 이에 대해 질문한 결과, 교사들은 ‘학생과 대화의 시간을 갖도록 함’(40.2%)에 가장 많은 응답을 하였다. 그 다음 순으로 ‘협동과제를 강화함’(25.8%), ‘평가에 인성영역을 반영함’(24.6%)을 들었다.

4. 영재교사와 학부모와의 관계

가. 영재교사의 12%만이 학부모가 자녀의 심리특성을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

영재담당 교사가 생각하기에 영재학부모는 그들 자녀의 심리적 특성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다고 보는지를 질문한 결과, 영재교사의 12% 정도만이 학부모들이 자녀의 심리특성을 이해하고 있다(그렇다(11.61%), 매우 그렇다(0.37%))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영재학생의 심리특성에 대한 학부모의 이해 정도에서, 응답자의 배경변수별 응답 수준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나. 교사들이 겪는 영재학부모와의 관계에서 느끼는 어려움: 이기적 행동, 지나친 간섭 등

영재 학부모와의 관계에서 느끼는 어려움의 심각한 정도에 대해 교사들에게 질문한 결과, ‘심각하다’ 혹은 ‘매우 심각하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은 ‘학부모의 이기적인 행동’(49.69%),이었다. 다음은 ‘학부모의 지나친 간섭’(43.08%), ‘영재선발에 대한 이의 제기’(30.71%), ‘학부모의 지나친 무관심’(13.11%), ‘수업내용에 대한 지나친 불만 제기’(10.86%), ‘교사에 대한 노골적인 무시’(8.99%)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가 영재학부모와의 관계에서 느끼는 어려움 정도와 관련하여, ‘학부모의 지나친 무관심’에 대해서는 영재학급 근무 교사(2.61/5점)가 영재교육원 근무 교사(2.37)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심각하다고 응답하였다. ‘학부모의 지나친 간섭’에 대해서는 대도시 근무 교사(3.42)가 읍면 근무 교사(2.97)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심각하다고 응답하였고, ‘영재 선발에 대한 이의 제기’에 대해서는 대도시 근무 교사(3.35)가 중소도시(2.79)나 읍면(2.81) 근무 교사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심각하다고 응답하였다. ‘교사에 대한 노골적인 무시’에 대해서는 생활지도 연수 경험이 있는 교사(2.53)가 경험이 없는 교사(2.28)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심각하다고 응답하였다.

<표 8> 교사가 영재학부모와의 관계에서 느끼는 어려움 정도: 소속 기관 유형별

구 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F값	집단간 차이	
학부모의 지나친 무관심	영재학급(a)	116	2.61	.967	4.666*	a>b
	영재교육원(b)	151	2.37	.853		
	합계	267	2.48	.911		

<표 9> 교사가 영재학부모와의 관계에서 느끼는 어려움 정도: 근무지별

구 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F값	집단간 차이
학부모의 지나친 간섭	대도시(a)	100	3.42	.955	4.185* a>c
	중소도시(b)	100	3.18	1.038	
	읍면(c)	67	2.97	1.000	
	합계	267	3.22	1.010	
영재 선발에 대한 이의 제기	대도시(a)	100	3.35	.925	10.216*** a>b,c
	중소도시(b)	100	2.79	.977	
	읍면(c)	67	2.81	1.019	
	합계	267	3.00	1.002	

<표 10> 교사가 영재학부모와의 관계에서 느끼는 어려움 정도: 생활지도 연수 경험별

구 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F값	집단간 차이
교사에 대한 노골적인 무시	있다	90	2.53	.902	4.643* 있다>없다
	없다	177	2.28	.898	
	합계	267	2.37	.905	

교사들이 영재 학부모와의 관계에서 느끼는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실시한 ‘학부모와의 어려움 중 가장 심각한 사례’를 적는 자유응답결과에서, 자녀에 대한 과대평가와 그에 따른 학부모들의 과도한 혹은 이기적인 요구, 교사에 대한 신뢰부족, 교사에 대한 지나친 간섭 등이 가장 큰 어려움으로 지적되었다.

<표 11> 영재학부모와의 관계 시 겪은 어려움의 사례(자유응답 분석결과)

사례 유형	빈도
자녀에 대한 과대평가 및 객관적 시각 부재	28
영재교사에 대한 신뢰 부족 (영재교사 능력 의심, 사교육과 비교)	11
영재교육기관 및 영재교사에 지나친 간섭(학부모의 월권으로 인해 교육의 독립성 보장이 안 됨, 잘못된 정보 제시)	11
자녀에 대한 특별관리 요구	9
영재교육에 대한 이해 부족(성적 위주의 교육 요구, 리더십 등 인성교육 간과, 장기적 안목 부재)	8
영재교육을 부차적인 것으로 여기는 태도(학생의 사교육 스케줄을 고려한 시간 편성 요구, 무단결석, 최소 이수요건만 채우려함, 학생이 너무 바빠 프로젝트 학습을 하기 어려움)	6
영재 선발 및 진급에 대한 이의 제기	5
학부모의 무관심	4
영재교사-학부모 간 소통 부재	3
사례 없음	20
학부모에 대한 영재교사 개인 차원의 대응에 한계 있음. 학부모 연수 및 교육 필요	2
기타	
진로상담의 어려움	1
학력정상주의로 인해 미술영재에 대해 낮게 보며 인정하지 않음	1
영재수업내용이 학년별 구분되지 않아 중복된다는 항의	1

다. 영재교사들의 다양한 문제해결 방법

영재 담당 교사에게 영재 학부모와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 질문한 결과, 교사들은 ‘안내문을 통한 협조 요청’(27.8%)에 1순위로 가장 많이 응답하였다. 다음 2순위 응답으로는 ‘학부모와의 개별상담시간을 마련함’(21.8%)이, 그리고 3순위 응답으로 ‘학부모 연수 프로그램 강화’(23.8%)의 순이었다.

교사의 배경 변수별 차이 분석을 한 결과, 영재학부모와의 어려움을 해결할 때 사용하는 방법 중, ‘학교와 기관 차원에서 강력하고 단호한 대응’에 대해서 생활지도 상담 경험이 없는 교사(17.5%)가 경험이 있는 교사(10.9%)보다 더 높은 비율로 응답하였고, ‘학부모 연수프로그램 강화’에 대해서도 생활지도 상담 경험이 없다는 교사(28.8%)가 있는 교사(21.1%)보다 더 높은 비율로 응답하였다. ‘평가에 인성영역을 반영한다고 알림’에 대해서도 생활지도 상담 경험이 없는 교사(13.8%)가 경험 있는 교사(6.8%)보다 더 높은 비율로 응답하였다.

반면에, ‘안내문을 통한 협조 요청’에 대해서는 생활지도 상담 경험이 있는 교사(31.3%)가 없는 교사(21.3%)보다 더 높은 비율로 응답하였고, ‘학부모와의 개별상담시간 마련’함에 대해서도 생활지도 상담 경험이 있는 교사(29.9%)가 경험 없는 교사(18.8%)보다 더 높은 비율로 응답하였다.

<표 12> 영재학부모와의 어려움을 해결할 때 사용하는 방법-1순위: 배경변수별 비교

구 분	영재학부모와의 어려움을 해결할 때 사용하는 방법-1순위						전체	χ^2
	학교와 기관 차원에서 강력하고 단호한 대응	안내문을 통한 협조 요청	학부모 연수프로그램 강화	학부모와의 개별상담시간 마련함	평가에 인성영역을 반영한다고 알림			
생활지도 상담 경험	있다	빈도 16 % 10.9%	46 31.3%	31 21.1%	44 29.9%	10 6.8%	147 100.0%	10.072*
	없다	빈도 14 % 17.5%	17 21.3%	23 28.8%	15 18.8%	11 13.8%	80 100.0%	
전체	빈도	30	63	54	59	21	227	
	%	13.2%	27.8%	23.8%	26.0%	9.3%	100.0%	

5. 생활지도가 힘든 이유는 ‘별도의 상담 시간이 마련되지 않음’, ‘과다한 영재업무’ 때문

영재교사들이 학생 생활지도를 하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는 ‘별도의 상담 시간이 마련되지 않음’에 따른 어려움(3.92/5점)때문이었다. 이는 영재교육원(3.77)보다 영재학급(4.10)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이 외에 ‘과다한 영재 업무’(3.59)를 지적한 교사들도 많았는데, 특히 영재교육원(3.42)보다도 영재학급(3.80)의 교사들이 더 높은 수준의 응답을 하였다.

6. 문제 해결 및 개선을 위해 영재교사들은 ‘인성교육 프로그램의 별도 운영’과 ‘경험 있는 영재교사들의 멘토링 프로그램 활성화’ 등을 요구

생활지도를 위한 개선 요구사항에서 영재교사들은, 인성교육 프로그램의 별도 운영(3.89), 경험 있는 영재교사들의 멘토링 프로그램의 활성화(3.87), 사례 중심 영재 생활지도 및 상담 가이드라인 개발(3.82), 영재 상담 전문가 연계 방법(3.77), 전문가 활용 정보 제공(3.73), 영재 상담 전문가 배치(3.45) 등을 요구하였다. ‘영재 상담 전문가 배치’에 대해 5점 만점 중 3.45을 기록한 것을 제외하고, 모든 항목에서 3.70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교사들은 영재 생활지도를 위해, 이 모든 것이 필요하다는데 강한 동의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다음의 몇 가지 사항은 교사 배경변인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예컨대, ‘전문가 활용 정보 제공’에 대해서 영재학급 근무 응답자(3.89)가 영재교육원 근무 응답자(3.60)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영재 상담 전문가 연계 방법’에 대해서도 영재학급 근무 응답자(3.96)가 영재교육원 근무 응답자(3.63)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사례 중심 영재 생활지도 및 상담 가이드라인 개발’에 대해서도 영재학급 근무 응답자(3.97)가 영재교육원 근무 응답자(3.71)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영재 상담 전문가 배치’에 대해서 중학교 근무 응답자(3.71)가 초등학교 근무 응답자(3.29)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사례 중심 영재 생활지도 및 상담 가이드라인 개발’에 대해서 생활지도 연수 경험이 있는 응답자(4.00)가 연수 경험이 없는 응답자(3.73)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표 13> 생활지도를 위한 개선 요구사항: 담당 학교급별

구 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F값	집단간 차이	
영재 상담 전문가 배치	초등학교	174	3.29	1.123	5.058**	중>초
	중학교	76	3.71	1.030		
	고등학교	17	3.82	.809		
	합계	267	3.45	1.097		

<표 14> 생활지도를 위한 개선 요구사항: 생활지도 연수 경험별

구 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F값	집단간 차이	
사례 중심 영재 생활지도 및 상담 가이드라인 개발	있다	90	4.00	.972	4.906*	있다>없다
	없다	177	3.73	.932		
	합계	267	3.82	.953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은 현장교사들의 인식을 중심으로 영재들의 생활지도의 필요성과 생활지도 현황 및 문제점을 조사하여 향후 교사들의 영재 생활지도를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보고자 함에 있다. 연구를 위해 교사들이 영재교육에서 생활지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우리나라의 영재들이 갖고 있는 가장 심각한 생활지도상의 문제가 무엇이라고 보며, 이러한 문제들이 어느 정도로 심각하다고 인식하는지, 그리고 그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한다고 보는지 등을 조사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의 주요 몇 가지 사항으로 정리된다.

첫째, 전체 응답자의 82.77%가 영재교육에서 생활지도가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교사의 배경변수 별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이는 교사의 배경변수와 상관없이 대부분의 영재교사들이 영재 생활지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둘째, 교사들은 영재학생의 심리적 특성에 대한 이해 정도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응답자의 40.07%(‘그렇다’ 35.58%, ‘매우 그렇다’ 4.49%)만이 이해하고 있다고 답하였다. 그리고 영재학생의 심리적 특성에 대한 이해 정도에서 초등학교 근무 교사가 중학교 근무 응답자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영재교사의 학생이해 및 지도를 위한 연수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셋째, 우리나라 영재들이 교실현장에서 보여주는 생활지도 상의 문제들 중 교사가 가장 심각하게 문제로 느끼고 있는 것은 ‘영재들의 이기적 성향’(60.67%)이었다. 설문문항 제작을 위한 사전조사에서도, 또 설문지의 자유응답결과에서도 교사들은 이 문제를 가장 심각하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사례들을 나열해 보면 다음과 같다.

“두뇌 명석하고, 학습 습득력도 뛰어나며, 절대 손해보는 짓하지 않고, 자신보다 못하는 학생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만 옳고, 흑백논리로 모든 사건, 사물을 비판함. 다른 사람의 의견, 처지는 잘 이해하지 못하고 혹시 실수를 할 경우 강박 증세가 있음”

“반드시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주어진 문제를 해결해야만 한다는 이기주의적 성향”

“수업 후 정리정돈 시 적극적인 참여보다는 서로 눈치보며 누군가 대신 해주기를 바라는 모습을 보임”

“극단적인 이기심으로 교사의 심부름조차 거부함”

이밖에도 이기적 태도로 인한 협동과제 수행의 어려움, 타인의 조언 및 충고 무시, 타인에 대한 이해와 배려 부족 등을 교사들은 가장 심각한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학부모와의 관계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 교사들이 학부모와의 관계에서 느끼는 가장 심각한 어려움은 ‘학부모의 이기적인 행동’(49.69%) 이었다. 사전조사와 자유응

답결과에서 보여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학부모 중에는 내 자식이 최고다라는 생각으로 영재교사의 조언을 무시하거나 자신의 아이가 수업 중 불이익을 받았다고 항의하며, 자기 아이만 똑똑하다고 생각하여 문제가 생기면 다른 사람이 잘못이라고 생각함.”

“학부모의 이기심 - 영재 수업을 하나의 스펙 쌓기 정도로 생각하여 전체 운영과정은 무시하고 최소의 이수시간만 이수하려는 이기심을 보임”

“내 아이가 영재이니 당연히 교사나 교육기관이 내 아이를 위해 원하는 것을 제공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함”

이 사례들을 살펴보면, 교사들이 ‘학부모의 이기심’이라고 여기는 문제들의 배후에는 ‘자신의 자녀에 대한 과대한 평가와 객관적 판단의 결여’가 매우 많이 작용하고 있다. 또한 영재교육을 스펙쌓기나 학업성적을 향상시키기 위한 보충수업 정도로만 이해하고 있는 학부모들의 영재교육에 대한 잘못된 인식도 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넷째, 교사들은 문제해결의 방법에 대해 ‘학생과의 대화의 시간을 갖도록 함’(40.2%)을 1순위로 답하였다. 학부모와의 문제해결 방법에 대해서도 ‘안내문을 통한 협조 요청’(27.8%)과 ‘학부모와의 개별상담시간 마련함’(26.0%)을 각각 1순위와 2순위로 답하였다.

다섯째, 교사들은 문제해결의 방법으로 ‘학생과의 대화의 시간을 갖도록 함’을 가장 많이 응답하였으나, 정작 ‘별도의 상담 시간이 마련되지 않음’과 ‘과다한 영재업무’로 생활지도를 위한 학생과의 대화시간을 갖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영재학급의 교사들이 영재교육원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그러하다고 응답하였다.

여섯째, 교사들은 생활지도 상의 문제해결을 위하여 ‘영재 상담 전문가 배치’(3.45)보다는, ‘경험 있는 영재 교사들의 멘토링 프로그램의 활성화’, ‘인성교육 프로그램의 별도 운영’, ‘전문가 활용 정보 제공’, 영재상담 전문가 연계 방법’, ‘사례 중심 영재 생활지도 및 상담 가이드라인 개발’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영재상담 전문가 배치’에 대해서 중학교 근무 응답자(3.71)가 초등학교 근무 응답자(3.29)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필요하다고 응답했다는 사실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가 시사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사들은 심각하게 생활지도가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고, 이에 대한 적극적 대응이 요구된다.

본 조사결과에 따르면, 교사들이 느끼는 생활지도의 필요성이란 영재들에게 특수하게 나타나는 정신적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해결의 필요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대체로 국내외 영재이론서에서는 영재아의 사회·정서적 요구를 내재적 요구와 외재적 요구로 구분

하고(Webb, 1993), 내재적 요구로는 비동시성, 동료관계 형성에서의 특이성, 완벽주의, 위협 회피경향, 내향성, 과도한 자기비판, 다중잠재성, 민감성, 존재적 절망감 등을, 외재적 요구로는 수업의 지루함, 타인의 기대감, 가족의 기대와의 불일치 등을 중요하게 취급한다. 그러나 이러한 영재의 일반적 사회·정서적 문제들은 우리나라 교사들이 일상적으로 영재교육현장에서 느끼는 가장 심각한 문제들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들이 생활지도와 관련하여 심각하게 느끼는 문제들은 학생들의 극단적인 자기중심적 성향, 타인에 대한 배려 부족 등 일반학교교육현장에서도 자주 나타나는 문제들인데, 교사들은 이러한 문제들이 정규과정이나 영재교육이라는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더 극명하게 드러난다고 본다. 이는 두 가지로 해석해 볼 수 있다. 하나는, 우리나라의 영재들이 학업우수자에게 관대한 가정 사회적 환경 속에서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영재들의 이기적 성향이나 남에 대한 배려부족 등이 가정과 학교에서 자주 용인되면서, 영재들이 모여있는 영재교육현장에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교사들의 영재에 대한 높은 기대가 영재들의 ‘이기적 성향’을 일반아동들의 그것에 비해 더 심각한 문제로 느끼게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이다. 우리는 은연중에 영재란 ‘우리나라의 리더가 될 아이들인데 인성이 이래가지고는 안 된다’는 식의 엘리트로서의 의무감을 영재들에게 기대할 수 있다. 이러한 시각에서는 영재들의 문제가 더 심각하게 느껴질 것이다.

어느 것이 더 큰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지는 이번 조사에서 확실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영재들의 이기적 성향’이 교사의 배경 변수와 무관하게 모든 경우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영재아 생활지도에서 기본생활습관, 도덕성, 예절생활 등이 중요하게 다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영재교육에 대한 교사연수에서도 이 문제를 다룰 필요가 있다고 본다.

둘째, 교사들은 학부모들과의 관계에서 학부모들의 이기적인 성향과, 영재교육에 대한 잘못된 인식, 자녀에 대한 과도한 평가 등을 심각한 문제로 느끼고 있다. 교사들의 12%만이 영재학부모들이 영재를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는 교사들이 학부모들의 영재자녀 이해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느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영재학부모들의 영재교육에 대한 잘못된 인식의 하나로, 한 교사는 자유응답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학부모들의 영재교육에 대한 잘못된 인식은 바로잡아 줄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학부모 연수에서 영재의 생활지도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특히 학부모들의 잘못된 인식과 행동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학부모들에게 설명하는 것이 그들의 인식전환에 더 효과적일 것이다.”

그러므로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한 영재교육연수가 더 확대되어야 하며 구체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한 학부모용 연수프로그램이 개발될 필요가 있겠다.

셋째, 교사들은 심각하게 생활지도가 필요하다고 느끼지만 실제 교육현장에서는 현실적인 벽에 부딪히고 있다. 가장 큰 벽은 워낙 짧은 시간 영재학생들과 만났다 헤어지는 영재수업의 특성상 학생들과의 래포 형성이 쉽지 않다는 점과, 별도의 상담시간을 갖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게다가 영재업무가 너무 많아 생활지도까지는 엄두도 내지 못하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운 현실적인 여건에도 불구하고 영재교사들의 61.42%가 생활지도나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고 답한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교사들은 과다한 영재업무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상담전문가가 배치되는 것으로 생활지도의 문제가 해결될 수는 없을 것이라 보고 있다. 상담전문가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보다는 교사가 해결해야 하는 문제들이 더 자주 발생하기 때문일 것이다. 과다한 영재업무에도 불구하고 교사가 생활지도와 상담의 역할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교사들을 도와줄 수 있는 다른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다. 영재교사들은 ‘인성교육 프로그램의 별도 운영’, ‘경험있는 영재 교사들의 멘토링 프로그램의 활성화’, ‘사례중심 영재 생활지도 및 상담 가이드라인 개발’, ‘영재 상담 전문가 연계 방법’, ‘전문가 활용 정보 제공’ 등을 요구하였다. 다음은 기타 의견으로 교사들이 제시한 것이다.

“현장에서 영재학생 생활지도 및 상담 준비를 지도교사가 할 수 있는 교육적 인프라는 거의 없으며, 기존 상담 심리계의 교사에 대한 전문 연수 지원은 매우 폐쇄적인 구조이다. 결국은 영재 학급을 중심으로 지도교사들의 교육과정 워크숍을 중심으로 한 자생적 풀뿌리 상담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

즉 영재교사들의 생활지도와 상담준비를 돕기 위해서 ‘경험 있는 교사들을 중심으로 한 상담협의체 운영’이 더 현실적인 방안임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조사결과에 따르면 영재교육원보다 영재학급 교사의 경우 이러한 요구가 더 높다는 것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 영재연수에서 상담에 관련된 연수는 거의 없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다.

“기존의 영재연수에서는 학부모와 상담에 관련된 연수는 거의 없다. 연수 내용도 단편적이고 흥미를 끌 수 없는 내용이다. 다양한 사례를 모아 다양한 상담유형을 만든다면 좋을 것이다.”

이는 생활지도 및 상담에 관한 연수나 자료의 경우 이론 중심보다는 사례 중심의 생생한 내용이 더 유용할 것임을 알려준다. 그러므로 영재연수에 생활지도 및 상담관련 내용을 포함하는 프로그램의 개발과 사례 중심의 자료 개발이 필요하다.

넷째, 우리나라의 영재교육은 정책적으로 소수의 신동이나 학교생활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영재들을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초중고 학령의 최대 3% 정도에 해당하는 잠재성을 가진 영재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2013년 10월 기준, 12만 명 정도의 영재 학생들이 국가예산으로 운영되는 영재교육을 무상으로 받고 있으며, 이들이 향후 영재종합데이터베이스(GED)를 통해 장기적으로 관리되어질 것이라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영재교육 모델은 싱가포르와 같은 국가주도형 모델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이 선진국형이냐, 아니냐 혹은 개인을 사회적 경제적 자산으로만 보는 지나치게 경제적인 시각이냐, 아니냐 하는 평가를 하기 이전에, 우리의 영재교육 모델은 인적 자원이 유일한 국가의 자산인 싱가포르나 한국과 같은 작은 경제 부국들이 택할 수밖에 없는 정책적 특수성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본다. 다만 향후에는 이것을 산업경제 시기의 엘리트교육의 차원으로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우리 사회공동체에 기여하는 사회적 자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윤리적 마인드를 갖춘’ 영재를 키우는 한국형 영재

교육 모델로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과거의 엘리트교육처럼 집단적 윤리의식을 주입하는 방식이 아니라 영재의 개별적 정서적 특수성을 고려한 생활지도와 상담이 앞으로 더 중요해져야 하며, 이를 담당할 영재교사들의 역할 역시 더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김계현 외 6인(2000). **학교상담과 생활지도**. 서울: 학지사
- 김선미, 유미현(2013). 중학교 영재학생과 일반학생의 시간관리 행동, 생활만족도 비교 및 시간관리 행동과 생활만족도의 관계. **영재교육연구** 23(3), 315-333.
- 김충기(2003). **생활지도와 상담**. 경기도: 한국학술학정보(주).
- 배진호, 김언경, 김재영(2004). 초등학생의 성격특성과 과학적 태도 분석과 이들의 상관관계 연구. **초등과학교육**, 23(1), 1-7.
- 송경혜, 이지현(2001). 중학교 과학영재의 완벽주의 성향과 스트레스와의 관계. **영재교육연구**(11), 23-37.
-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1995). **교육학용어사전**.
- 신미리, 박정옥(2003). 유아의 지능과 정서지능의 관계. **영재교육연구**, 13(1), 97-113.
- 여상인, 백은주(2007). 초등과학영재와 일반학생의 정서지능 비교. *Journal of the Society for the international Gifted in Science*, 1(1), 43-49.
- 윤여홍(2000). 영재의 심리적 특성과 정서발달을 위한 상담.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19(1) 79-101.
- 윤초희, 윤여홍, 김홍원(2004). 지적으로 우수한 초등 영재아의 심리사회적 적응.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7(2), 177-196.
- 이국행, 이영환, 김현지(2003). 과학영재아동의 적응, 자기지각, 사회적 지지 및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영재교육연구**, 13(2), 73-94.
- 이신동, 홍종선(2011). 영재학생과 일반학생 그리고 영역별 영재학생의 심리적, 신체적, 환경적 특성 비교. **한국교육학연구**, 17(1), 351-372.
- 이장호(1999). **상담심리학**. 서울: 박영사
- 이정희(2008). 초등학교 원로교사의 생활지도 경험에 관한 해석학적 탐구. **초등상담연구**, 7(1), 111-133.
- 임혜숙(1997). 영재아동의 행동특성에 관한 일연구 : 기관영재, 일반영재를 중심으로. **교육심리연구**, 11(3), 183-204.
- 조성신, 유미현, 여상인(2011). 영재학생의 일반학급 및 영재교육기관에서의 학교생활만족도. 한국영재학회. **영재교육연구**, 21(2), 465-484.
- 진선홍, 양태연, 한기순(2012). 영재들의 자살생각에 관한 구조모형 탐색. **영재교육연구**, 22(3), 779-800.
- 천유리, 한기순(2012). 영재아동과 일반아동의 또래관계성향 및 관계 유지노력과 학교생활

- 적응 간의 관계. **영재교육연구** 22(4). 875-892.
- 한기순, 양태연(2007). 최근 국내 영재교육 연구의 흐름: 2000-2006년도 연구물 분석. **영재교육연구**, 17(2). 338-364.
- 현 주, 최상근, 차성현, 류덕엽, 이혜경(2009). **학교 인성교육 실태분석 연구 - 중학교를 중심으로** -. 한국교육개발원 RR 2009-09.
- Blackett, J., & Hermansson, G. L. (2005). Guidance and Counselling of the Gifted and Talented in New Zealand. *International for the Advancement of Counselling*, 27(2), 277-287.
- Marland, S. P. (1972). Education of the Gifted and Talented : Report to the Congress of the United States by the U. S. Commissioner of Education and background papers submitted to the U. S. Office of Education, 2 vols. Washington, DC: U. S. Government Printing Office.(Government Documents Y4.L 11/2: G36). <http://files.eric.ed.gov/fulltext/ED056243.pdf>
- Neihart, M., Reis, S. M., Robinson, N. M., & Moon, S. M. (2002). *The Social and emotional development of gifted children*, Profrock Press.
- Robinson, A., & Clinkenbeard, P. R.(2008). History of Giftedness : Perspectives from the Past Presage Modern Scholarship. In: *Handbook of Giftedness in Children* by Pfeiffer, S. I. (ed.), Springer, 황희숙 외, 영재아동의 이해, 시그마프레스. 2011.
- Silverman, L. K. (Ed.)(1993a). *Counselling the gifted and talented*. Colorado: Love Publishing Company.
- Silverman, L. K. (1993b). A developmental model for counseling the gifted. In L. K. Silverman(Ed.), *Counseling the gifted and talented*. Colorado: Love Publishing Company
- Silverman, L. K. (1993c). Counseling needs and programs for the gifted. In K. A. Heller, F. J. Monks, & A. H. Passow (Eds.). *International handbook of research and development of giftedness and talent*. New York: Pergamon.
- Webb, J. T. (1993). Nurturing social-emotional development of gifted children. In K. A. Heller, F. J. Monks, & A. H. Passow (Eds.), *International handbook of research and development of giftedness and talent*, Pergamon Press. 525-538.

= Abstract =

A Survey on the Problems and Conditions of Educational Guidance and Counselling in the Gifted Education Programs

Jae-boon Lee

KEDI

Mikyung Lee

Chonnam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problems and conditions of educational guidance and counselling of teachers in the gifted classes. For the study, 267 teachers were sampled from the Gifted Education Institutes of metropolitan and provincial offices of education and Gifted Classes of the school across Korea, and the questionnaire developed by the researchers were administered to them.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 First, the 82% of respondents reported that the guidance and counselling in the gifted education is needed. So it demands the active responsive strategies on it. Second, the respondents reported that the selfish or self-centered traits of the gifted students are the most problematic in the gifted classes. It shows the emphasis should be put on the basic life habits and moral education in the guidance and counselling of the gifted education. Third, they pointed out the case-based education is needed for the parents of the gifted to correct their misconceptions about their children. Fourth, to support the teachers of the gifted program, the administrative measures have to be taken, like operation of character education program, forming a consultative group with the experienced teachers, developing the case-based guideline for the guidance and counselling for the gifted education, etc. Fifth, we should develop the Korean model of the gifted education to promote social capital for our future society.

Key Words: Guidance and counselling in the gifted education programs, Actual problems in guidance and counselling, Counselling for parents

1차 원고접수: 2014년 4월 30일
수정원고접수: 2014년 6월 16일
최종게재결정: 2014년 6월 16일